

“의료·건강·요양·주거 한 번에” 퇴원환자까지 촘촘한 연계 지원

서울시, ‘서울형 통합돌봄’

어르신·장애인 맞춤형 지원 확대
퇴원 전 의뢰로 재택 돌봄 공백 최소
25개 자치구 중심 대응체계 구축
지역사회 기반 통합돌봄 안착 본격화

서울시가 오는 27일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서울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

서울시는 어르신과 장애인이 병원이나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살던 곳에서 의료·건강·요양·돌봄·주거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서울형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과 고령 장애인, 65세 미만 중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보건의료, 건강, 장기요양, 일상돌봄, 주거 등 5개 분야 58개 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한다. 통합돌봄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예비대상자로 관리하며 6개월마다 모니터링해 필요시 돌봄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신청은 본인이나 가족이 구청 또는 동 주민센터를 통해 하면 된다.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 자치구가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후 담당 공무원 등이 방문해 사전조사와 종합판정,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통합지원회의를 거쳐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시는 제도 시행에 앞서 지난해 25개 전 자치구를 대상으로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올해 초에는 자치구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동행센터에 돌봄매니저와 복지플래너를 배치했다.

자치구는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과 통합지원회의 운영, 서비스 연계 등 지역 단위 통합돌봄을 맡는다. 동 주민센터는 상담과 신청 창구를 운영하며 대상자 발굴, 신청 접수, 사전조사, 정기 모니터링을 담당한다.

서울시는 제도 안착을 위해 통합돌봄



서울형 통합 돌봄.

/뉴시스

종합상황실과 콜센터를 운영한다. 시행 초기 현장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치구, 보건소, 동 주민센터에 한시적 인력도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앞으로 자치구 간 돌봄 지원 정보를 공유하고 자원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해 의료·요양·돌봄·주거 분야의 돌봄자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5개 권역별 위치 기반 자원 현황도 함께 마련한다.

방문진료 지원체계도 확대한다. 서울시는 25일 전국 최초로 ‘서울시 일차의료 방문진료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간다. 올해 일차의료 방문진료기관 2500개소를 확보하고 2030년까지 7000개소로 확대할 방침이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도 현재 62개소에서 장기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같은 날 삼급종합병원 13곳과 시립병원 7곳과 업무협약을 맺고 병원과 25개 자치구 간 공식 연계 체계도 구축한다. 병원이 퇴원 전 환자의 의료·돌봄 필요도를 판단해 자치구에 의뢰하면, 자치구는 사전조사와 맞춤형 지원계획을 세워 퇴원 전부터 지원을 시작하는 방식이다.

퇴원환자와 통합돌봄 대상자를 중심으로 건강장수센터도 개편한다. 기존 17개소인 건강장수센터는 올해 33개소

로 확대된다. 보건소 다학제팀이 참여해 맞춤형 케어플랜을 세우고 재택 방문 건강관리도 지원한다.

장기요양수급자에 대해서는 건강상태와 욕구를 반영한 장기요양 서비스를 연계하고, 가족 부담 완화를 위해 주·야간보호기관의 단기보호 서비스와 장기요양가족휴가제도도 지원한다. 장기요양 가구에는 가족 상담과 교육도 제공한다.

긴급돌봄이 필요한 퇴원환자, 장기요양 등급 외자, 장애인활동지원 신청 기각자 등에 대해서는 간병과 가사서비스에 한해 돌봄SOS서비스 이용 한도액을 늘릴 예정이다. 퇴원 후 집중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986명에게는 단기 돌봄서비스도 새로 제공한다.

주거 지원도 포함된다. 희망의 집수리 사업을 통해 문턱 제거와 안전손잡이 설치 등을 지원하고, 주거취약 1인가구를 대상으로 생활불편 처리와 흡케어, 클린케어 등 주택관리 서비스도 제공한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촘촘한 돌봄 체계를 구축해 통합돌봄의 표준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metro

문이과 통합해도 합격선 격차 더 벌어진다

자연계 강세 이과 선호학과 상승 전망
문과 비인기 학과 하락폭 커질 가능성

2028학년도 고교 문이과 완전 통합이 시행되지만 입시 결과까지 평준화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상위권 자연계 선호가 이어지면서 이과 학과 합격선은 더 높아지고, 문과 비선호 학과는 예상보다 큰 폭의 하락을 겪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종로학원은 2028학년도부터 수능이 문이과 완전 통합형으로 바뀌더라도 실제 대입에서는 학과별 합격선 격차가 지금보다 더 크게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24일 분석했다.

현 고2와 고1부터 적용되는 2028 대입 개편안은 국어와 수학의 선택과목을 폐지하고 단일화된 시험으로 치러지며, 탐구 역시 문과와 이과 구분 없이 공통 응시 체제로 전환된다.

실제 최근 수시 합격선 흐름은 자연계가 강세다. 학생부종합전형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고, 정시에서도 계열 간 점수 격차는 뚜렷하게 나타났다.

종로학원은 2028학년도부터 수능이 문이과 통합형으로 바뀌면 자연계 학과 지원 집단의 수학 점수가 인문계 지원 집단보다 더 높게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탐구 역시 사탐과 과탐을 함께 준비해야 하는 구조로 바뀌는 만큼 과탐 성적 경쟁력이 있는 학생들이 전체 탐구 점수에서도 우위를 보일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에 따라 통합수능 아래에서도 상위권 학생들의 지원 흐름은 자연계부터 먼저 형성되고, 이후 인문계 학과로 이동하는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입시업계에서는 문이과 통합이 곧 계열 간 경쟁 완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이현진 기자

하남시, 서울-양평 고속도로 재개 환영

교산신도시 구간 조기 추진 촉구

이현재 시장이 이끄는 하남시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재개 발표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교산신도시 구간의 조기 추진을 정부에 촉구했다.

하남시는 지난 3월 13일 하남시장과 이동환 고양시장, 주광덕 남양주시장이 국회 소통관에서 ‘신도시 광역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건의를 진행한 데 이어, 3월 20일 홍익표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재개 방침을 발표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하남시는 수도권 주택공급 정책에 따라 미사강변도시, 위례신도시, 감일신도시 등이 조성된 지역으로, 그동안 광역교통개선대책 지연으로 주민들이 큰 교통 불편을 겪어 왔다고 설명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2018년 3기 신도시의 ‘서울 30분 출퇴근’ 실현을 목표로 수립된 교산신도시 핵심 광역교통대책이다. 그러나 2023년 6월 이후 약 3년간 사업이 중단되면서 ‘선 교통, 후 입주’라는 정부 정책 기조 달성이 어려



하남시청 전경.

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교산신도시는 2029년 첫 입주 시작해 2032년 대부분 입주가 완료될 예정이지만, 현재 계획대로라면 고속도로 착공 시점이 2029년 말로 잡혀 있어 교통 인프라 구축이 지나치게 늦어진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하남시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가운데 서울특별시~교산신도시(상상차IC)~상산곡기업이전단지(상산곡IC)~중부고속도로(북광주JCT) 구간이 2032년까지 우선 준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하남=(경기)유진채 기자 yujin@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에 334억 투입

학교 안팎 있는 서울형 지원체계 가동
보충수업·튜터 등 연계 책임지도 강화

서울시교육청이 334억원을 투입해 2026학년도 기초학력 보장 사업에 나선다. 정규수업 협력수업과 방과후 보충, 학습지원 튜터, 심층진단 연계를 묶어 학교 안팎의 기초학력 책임지도도를 강화한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실·학교·학교 밖을 연계한 ‘서울형 기초학력 지원체계’를 한층 강화해 2026학년도 서울 기초학력 보장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관내 모든 초·중·고 총 1328교가 학교 여건과 학습지원대상 학생 현황 등을 반영해 단위학교 기초학력 책임지도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

다. 모든 학교는 학습지원대상학생 지원협의회를 구성하고 ‘3월 진단활동 집중주간’을 운영해 다층적·통합적 진단 활동을 실시한다. 이후 진단 결과와 기초학력 미달 원인을 고려해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하고 학생별 지원 계획을 수립해 맞춤형 지원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은 기초학력 책임지도 예산 약 147억원을 투입해 학교별 학습지원대상학생 수와 학교 규모, 여건 등을 고려한 차등 지원을 했다. 각 학교는 ▲정규수업 시간 중 협력강사를 활용한 협력수업 ▲방과후 교과 보충 프로그램 ▲담임·교과 교사와 함께하는 기다리샘 등 학교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해 운영할 수 있다.

아울러 약 74억원을 투입해 초·중학

교에는 학습지원 튜터 620명도 지원한다. 올해는 학습지원 튜터 1인당 지원액을 기존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확대해 학기 중 멈춤 없는 기초학력 지원을 강화했다.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특수요인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올해 11개 교육지원청에서 전면 운영되는 ‘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를 통해 원스톱 심층진단과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정근식 교육감은 “기초학력은 학생의 기본권이며, 이를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2026 서울형 기초학력 지원체계를 통해 단 한 명의 학생도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빈틈없는 다중 학습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인천 개항장서 즐기는 로컬 문화축제

음악·마켓 등 결합한 복합행사

인천광역시와 인천관광공사는 3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인천 중구 상상플랫폼과 개항장 문화지구 일원에서 체험형 복합 문화 축제인 ‘1901 라이브로드’와 ‘2026 제물포웨이브 마켓’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인천의 로컬 브랜드와 역사·문화 콘텐츠를 한자리에 선보이며 지역 관광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1901 라이브로드’는 1901년 제물포 구락부에서 시작된 서양음악 교류 역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도보형 음악 축제, 28일에는 국가스텐, 서도밴드, 잭킹콩이, 29일에는 QWER, 크라잉넛, 극동아시아타이거즈가 무대에 오른다. 자유공원과 제물포구락부, 인천시민

예집 등에서는 신진 아티스트와 재즈 아티스트의 버스킹 공연이 진행되며, 27일에는 지역 라이브 클럽 5개소와 연계한 ‘클럽데이’와 로컬 주류 팝업 행사도 열린다.

‘2026 제물포웨이브 마켓’에는 42개 인천 로컬 브랜드가 참여하며, 행사장 내 ‘인천 누들로드’ 특별 전시·체험존에서는 면(麵) 관련 전시, 체험, 이벤트, 판매가 결합된 프로그램을 운영해 방문객이 인천 고유의 식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

인천관광공사 유지상 사장은 “개항장의 역사와 현대적 콘텐츠를 결합한 인천형 복합 문화관광 모델”이라며 “상상플랫폼을 중심으로 원도심 문화자산과 로컬 브랜드를 연계해 관광 콘텐츠를 확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이숙영 기자 sy1321@